

식생 파괴된 용눈이오름 ‘긴급수술’

흙 복토후 위에 야자매트 깔아 훼손 최소화 하기로 도 “작년부터 모니터링… 휴식년제 도입여부 검토”

속보=탐방객 발길이 이어지며 정상 부 훼손이 심각한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본보 4월 13일자 5면)에 대한 긴급정비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오름 탐방로에 주로 사용하는 야자매트만으로는 훼손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제주시는 정상에 일정량의 식생매트를 쌓아 복토후 그 위에 야자매트로 정비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식생이 파괴되고 송이층까지 드러난 용눈이오름 정상부에 약 400t의 식생매트를 쌓고 그 위에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비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가 지난 5월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오름보호관리자문단을 꾸려 연 회의에 서도 야자매트 설치만으로는 탐방객에 의한 답압을 견디지 못해 용눈이오름의 훼손을 막을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해발 247.8m의 야트막한 화산체인 용눈이오름은 접근성이 좋고 성산일출봉과 우도, 다랑쉬오름에 들어오는 빼어난 조망권을 자랑하며 하루 2000명 안팎의 탐방객이 찾는 곳이다. 탐방로와 정상부를 따라 야자매트가 깔렸지만 탐방객 인파로 다

른 오름보다 빠른 2~3년 주기의 교체작업에도 훼손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푸르려야 할 정상은 답압으로 맨 흙이 드러난지 오래고, 갈수록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침식이 심한 정상부에 400t 분량의 녹화매트를 쌓은 후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긴급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녹화매대를 정상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바위가 달린 장비로 녹화매대를 운반할 경우 탐방로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인력으로 많은 양을 운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용도 상당해 현재 헬기를 이용한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

혔다. 또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기간에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탐방객 출입제한을 제주도, 마을주민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자연휴식년제를 시행중인 4개 오름 중 내년에 물맞오름에 대한 한시적 개방을 검토하는 한편 훼손이 심하게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중인 용눈이오름과 백약이오름의 휴식년제 여부는 면밀히 검토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연휴식년제는 물맞오름과 도너리오름은 2008년부터, 문석이오름은 2019년부터, 대정읍 송악산 정상부와 정상 탐방로는 2015년부터 시행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손가락 절단돼야 대응하는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회계 결산 심의 급식실 안전사고 방관 지적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이 음식물쓰레기감량기에 의해 잇따라 손가락을 탐방객 출입제한을 제주도, 마을주민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건의 사고 가운데 3건이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감량기”라며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현재까지 단 한번

도 열리지 않았다. 사고가 나서야 개 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도 “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사고가 나면 예방 차원에서 교육청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 기획실장은 “사고는 기계적 결함이 아닌 급식소 공간 협소, 노동자의 고된 노동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당초보다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늦어졌다. 오는 30일 첫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감량기 사고와 안전교육, 폭염 대책 등에 대해 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은범기자

“콘텐츠 부족·학생 집중력 저하 발생”

교육청 원격수업 분석

코로나19로 시작된 초·중·고 원격수업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은근 책임을 회피했던 제주도교육청이 ‘원격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교육발전협회는 24일 제주도매주교육발전협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제주교육 방향’을 주제로 제주교육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뤄진 온라인 개학, 비대면 교육 등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 및 수업 운영 사례”를 주제로 강영철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원격수업 과정에서의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영철 과장은 원격수업 운영 문제점에 대해 “초기에는 접속 장애 등 시스템 불안정 문제로 적응기간이 필요했다”며 “이후에는 원격수업

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했고, 이를 제작하는 교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시간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맞벌이와 조손, 다문화가정 등에서는 원격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 밖에도 EBS 저학년 사용 문제와 친구·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과장은 “고도화된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유료 민간 콘텐츠 유통을 지원해 ‘수업의 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원격수업 콘텐츠·자료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과 무선망 설치 등 학교의 정보화 환경 조성도 제시했다.

강 과장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서인수 제주교육발전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송은범기자

구좌 낙농단지 농가 화재

24일 오후 3시2분쯤 제주도 구좌읍 상도리 낙농단지 내 농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송아지 1동과 사료 창고 1동, 사료 150포대가 불에 타고, 송아지 6마리가 폐사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산수국 만개한 사찰 장맛비가 내린 24일 제주도 아라동 남곡사에 산수국이 만개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민기자

컨벤션센터 개최행사 집합제한 조치 발동

도 “조건부 진행… 코로나 증상 발생시 구상권 청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대상으로 두번째 집합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대상은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0 경향하우징페어’와 25~26일 열리는 ‘한국수자원학회대회’다.

집합제한 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도는 이전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 및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은지기자

이는 코로나19가 기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수도권 내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자원 학술회의 및 900여명의 도민이 모이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관광객 반토막 됐는데 쓰레기 고작 10%대 ↓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분기(1~3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줄었지만 도내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 가정에서의 배달음식이나 택배 등 주문 물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량도 비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3월 관광객은 48만762명으로 지난해(116만4834명)의 절반도 안되며 58.7%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양은 관광객 유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전월 14.9~17.5%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도내 쓰레기 발생량이 관광객 급감에도 감소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각 가정에서의 배달음식 주문이나 택배 등을 통한 구매가 평소보다 많으면서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골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앵무목, 천혜향, 왕금향, 윈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외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2021년 식재용 예약

* 유라조생	1년생
* 카라향	1,3년생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